

# KCC, 현대 지분매입 차익만 803억원

정상영 회장 측 가외수입 650억원 ... 적법성 · 도덕성 논란 아랑곳

금강고려화학(KCC)의 공시 등을 분석해 볼 때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그룹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31.25%를 사는 데 740억원, 현대상선 주식 6.9%를 매입하는 데 510억원 등 총 1250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KCC는 대규모 지분매입을 통해 현대엘리베이터를 사실상 계열 편입하는 외에 정상영 명예회장 개인과 그룹 차원에서 모두 650여억원의 평가차익을 얻는 가외 수입까지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상영 명예회장의 단독펀드인 신한BNP사모펀드는 10월10일 11만7580주를 시작으로 28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71만9330주(12.82%)를 사들였다.

평균 매입가격은 최저 2만5863원에서 최고 3만4742원으로 총 211억5200만원을 투입했다.

이에 따라 11월14일 종가 5만89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정상영 명예회장이 보유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의 평가액은 423억6900만원에 달해 불과 한달 사이에 무려 212억1700만원의 평가차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계열사인 금강종합건설이 8월13일과 18일 각각 8만주(2만5000원)와 3만주(2만3100원) 등 11만주를 매입하는 한편, 고려시리카와 KCC가 3개의 사모펀드를 통해 27만7500주(3만7828원), 11만4850주(5만4532원), 4만6020주(7만803원)를 사들임으로써 총 446억4100만원의 평가차익을 얻었다.

KCC는 8월14일 6만4000주(2만1750원)에 이어 11월11일 42만1130주(6만4600원)를 추가로 매입한 결과 2300만원의 평가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 계열사가 현대엘리베이터 주식매집을 통해 얻은 평가차익은 총 658억 3500만원에 이른다.

이와 함께 한국프랜지공업 15만2810주, 현대종합금속 28만주, 현대지네트 8만주, 울산화학 14만1320주, 현대백화점 8만3810주 등 범 현대가가 최근 매입한 주식을 포함하면 총 지분 44.39%의 KCC 우호세력이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매입을 통해 올린 평가차익은 모두 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대그룹 접수로 국내기업 간의 적대적 M&A에 대한 인식도 변화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까지 우호적 M&A는 여러 차례 있어왔지만 적대적 M&A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적자생존 원칙과 기업이윤의 극대화 논리에 밀려 도덕성 운운하는 기업윤리는 이미 퇴색돼 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KCC는 M&A 방법이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대해 “소버린자산운용 등 외국펀드가 SK에 대한 지분 매수 형식으로 적대적 M&A 직전까지 몰고 갔던 것과 비교해 국내기업인 KCC은 오히려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Chemical Journal 2003/11/18>